

東·西獨에 있어서의 國民意識

李 敏 鎬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

1

독일은 1945년 2次大戰의 종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分斷國家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分斷國家라 하더라도 分斷이 지니는 歷史的 背景이나 現實的 條件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差異點은 분단 독일에 있어서의 國民意識⁽¹⁾의 문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西獨과 東獨에 있어서의 國民意識은 그들의 歷史解釋과 결부되어 가장 뜨겁게 불붙는 爭點으로 부각된다. 특히 西獨에 있어서의 독일문제(deutsche Frage)는 전승된 歷史像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歷史解釋을 시도함으로써 급변하는 狀況에 적응하는 政治的 統合過程을 추구하고 있다.

1949년에 성립된 독일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BRD, 西獨)는 國家體系의 基本을 확인하는 憲政制定에 대신해서 통일까지의 잠정적인 「基本法(Grundgesetz)」을 제정하여, 분단을 독일이 치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것(Provisorium)」, 즉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전망하였다.

基本法의 前文에는

「神과 人類 앞에서의 國家の 責任을 의식하고 그의 國民的, 國家的 統一을 유지하기 위한 意志에 고무되어……法制定權力으로 독일 民族은 과도기에 있어서의 國家的 生活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고 명시됨으로써 분단 초기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독일民族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시하게 되었다. 그 146조에는 다시 전체 독일民族이 자유로운 決定에 의해서 새로운 憲法을 채택하게 될 때까지만 基本法은 그 効力を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1949년 4월 西獨聯邦共和國이 수립된데 이어 그해 10월 소련占領下의 東獨에는 이론바 독일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로 약칭함)이 수립되었다. 東獨政權이 세워질 즈음하여 東獨共產黨, 즉

(1) 本論에서는 전통적으로 民族構成要因으로 강조하던 客觀的 要素——血統, 言語, 文化——에 중점을 두는 Nation을 民族으로, 政治的 統合過程에서 一體感이 요구되는 Nation을 國民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기로 한다.

統一社會黨(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은 이 政治機構의 창설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부지역에 있어서의 독일 애국자들의 주요 과업은 이 지역의 가능성과 유지를 위하여 전체 독일에서 대중 해방 운동의 각성과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다하는 데 있다. 동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전제생활은 통일된 독일을 쟁취하는 투쟁에서 모든 독일의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통합의 가능을 위한 확실한 예示가 되어야 한다.」⁽²⁾

西獨에서 그 基本法이 통일까지 잠정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유로운 意思決定에 의한 독일 통일을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東獨은 적극적으로 社會主義體系에 의한 독일 통일을 내세우고 강한 政治意識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상이한 政治秩序 속에서 國民意識과 一體性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政治教育과 歷史教育의 과정도 東·西獨은 심한 差異를 드러내게 되었다.

예컨대 東獨의 관점에서는 독일史를 변증법적 唯物史觀을 교조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東獨을 人文主義的 독일 文化傳統의 정통적 후계자로 자처하는 반면, 西獨을 軍國主義의이고 파쇼적 전통의 계승자로 단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西獨의 歷史敎科書에서는 東유럽의 共產主義가 가진 全體主義의 本質은 곧 과거의 國家社會主義의 독재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한다. 西獨人们은 스스로를 東獨人보다 知性的이고 근면하고 秩序를 존중하는 「전형적으로 독일적 (typisch-deutsch)」이라고 하여 긍정적인데 반해 東獨人을 부정적으로 「비독일적 (undeutsch)」이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각각 판에 박힌 독일觀과 統一觀으로 일관되어 歷史的 傳統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나 각기 다른 부분의 독일에 대한 共通性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³⁾

이렇게 對立된 상황에서 現狀의 固定化되지는 永久化를 가져오는 동시에兩獨關係를 새로운 次元에서 전개시키게 된 契機는 西獨에 있어서의 社會民主黨에 의한 執權이었다. 自由黨과의 小聯立內閣을 구성하여 執權하게 된 브란트首相은 1969년 10월 28일의 就任演說에 이어 1970년 1월 14일의 「분단 독일에 있어서 독일民族의 現狀」이라는 年頭敎書를 발표하여 독일民族은 하나이니나 독일땅에 두개의 國家가 현존한다는 이른바 「一民族 二國家論 (Zwei Staaten in einer Nation)」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2) Entschließung der SED vom 4 Oktober(밀접은 필자).

(3) M.Koch, Die Deutschen und Ihr Staat (Hamburg, 1972), S. 40.

이에 대해서 東獨은 한 民族의 두 國家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社會體系를 갖는 國家들에 있어서의 두개의 國民(Zwei Nationen in Staaten verschiedner Gesellschaftsordnung)」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⁴⁾

이 글에서는 분단된 독일—東獨과 西獨—에서의 國民意識의 变化과정을 추적하고 특히 1972년의 東西獨간의 基本條約(Grundvertrag)이 체결된 뒤에 다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분단된 독일의 두 國家, 東獨과 西獨에서 民族의 再統一에 대한 展望은 각각 어려하며, 특히 1972년에 東西獨간에 체결된 基本條約 이후 그 政治的 統合과 밀접하게 관련된 國民意識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西獨에서의 獨逸民族에 대한 論議가 歷史學研究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2

1945년 5월, 독일의 패망으로 옛 독일帝國(Deutsches Reich)⁽⁵⁾의 폐허 위에 東西로 분단되어 두개의 독일國家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두 다른 政治體制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政治體系에도 불구하고 장차 分斷狀態를 극복하고자 하는 基本路線에는 차이가 없었다. 社會主義와 民主主義라는 각기 다른 理念을 앞세워 성과있는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이루는 일이 분단된 相對國의 住民을 自國의 體制속에 끌어 들일 수 있다는 「強者の 政治(Politik der Stärke)」가 雙方이 추구한 政策이었다.

1972년 西獨과의 基本條約이 체결될 때까지 「독일문제」에 대한 東獨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부분적으로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3개의 基本路線에 집중되었다.⁽⁶⁾

1. 독일의 再統一
2. 社會主義 建設
3. 노동자계급의 國際主義의 實現

1947년 12월에 런던에서 열린 「統一과 正義로운 平和를 위한 民族大會」를

(4) A.Norden, Fragen des Kampfes gegen den Imperialismus, Deutschland Archiv II (1972) S. 1223.

(5) 독일帝國은 962년에 형성되어 1806년에 붕괴된 神聖로마帝國을 제 1帝國,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 창건되어 1919년에 붕괴된 제 2帝國, 히틀러에 의한 第3帝國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라이히(Reich)라는 말은 독일 전체를 표시하는 말로서 바이마르憲法에서는 帝國議會(Reichsparlament), 帝國大統領(Reichspräsident)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6) Gebhard Schweigler, Nationalbewußtsein in der BRD und der DDR (Düsseldorf, 1973), S. 67.

통해서 東獨共產黨(統一社會黨)의 統一努力이 표명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1949년에 東獨에는 이른바 「민주적 독일의 국민전선(Nationale Front des Demokratischen Deutschlands)」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전선」의 주된 과업은, 「독일을 식민지화하고 독일민족을 노예화하는 세력, 즉 西方聯合軍과 西方帝國主義에 대한 투쟁과 직결되는 동시에 독일이 과거에 범한 지나친 民族主義를 비판하는 반면 소련에 대한 敵對感情의 解消, 社會國家들과의 紐帶」를 강조하게 되었다.⁽⁷⁾

1949년 10월에 세워진 東獨政權(독일民主主義共和國,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 國家目標를 전체 독일의 大衆運動의 각성과 발전을 이루는 前衛를 담당하고 앞으로의 독일統一에 대비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조적으로 신앙해야 할 스탈린의 民族論이 독일의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矛盾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찌기 스탈린은 民族을 「言語와 領土와 經濟生活의 共同體의 기반과 文化的 共通性위에 성립되어 歷史的으로 성립된 人間의 共同體」라고 표시하고 「이러한 특징의 하나라도 결핍될 때 民族은 성립되지 않는다」⁽⁸⁾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스탈린의 民族規定은 공통한 文化基盤을 가진 독일에 두개의 政治的 單位가 형성된 現實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부딪치게 되었다. 독일내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은 곧 전체 독일民族의 不在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스탈린의 民族理論 適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적 暗記」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⁹⁾ 「통일될 독일民族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帝國主義의 冒險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다. 民族의 全力量은 공통된 抵抗을 결속시켜 美帝國主義의 모든 기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실정에 맞는 民族論을 내세우게 되었다.

1952년 6월 東獨共產黨(統一社會黨, SED)은 「독일民主共和國에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일」은 「西獨의 反動的 權力者에 대한 一擊」으로서, 또한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길이 民族의 利益에 부합되고 독일 民族에게 平和를 사랑하고 여러 民族들간에 동등한 權利를 가진 民族으로서의 위대한 將來를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전체 독일의 統一을 그들의 路線에 따라 추구하게 되었다.⁽¹⁰⁾

(7) Programmatische Dokumente, (Neef Hg), 1969. S. 24.

(8) Schweigler, ebenda, S. 69.

(9) Schweigler, ebenda

(10) Schweigler, ebenda, S. 70.

그러나 끊임없는 共產主義의 위협에 직면하여 1952년 西獨政府는 일찌기 敵對國이었던 西方 聯合國과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權利와 義務를 규정하는 基本條約을 체결하고 西獨도 유럽 防衛共同體의 一員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東獨은 이러한 事態가 독일의 分斷을 永續化하는 것이라 비난하고 西獨의 再軍備를 반대하고 東西獨의 境界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은 소련의 政治指導路線을 변화시키고 東유럽 衛星共產國家에서의 労動者들의 대대적인 示威, 暴動이 접종되었다. 冷戰의 격화는 1955년 西獨이 北大西洋條約에 가담하는 반면, 東獨을 포함한 東유럽 불리이 바르샤바條約을 창설하여 이에 대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冷戰으로 分斷이 깊어진 상황속에서 東獨의 「國民戰線」은 「독일 民主主義共和國에서 일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과업이나 영예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새로운 成果가 곧 독일의 再統一의 礎石이 되기 때문」⁽¹¹⁾이라고 밝히면서 통일을 열망하는 東獨住民의 結束性을 다짐하고자 하였다. 또한 東獨의 國家代表 울브리히트는 1957년 독일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독일의 労動者계급과 民族의 모든 進步的 力量은 西獨의 帝國主義에 대항하여 독일 民主主義共和國에 가담하여 일관된 자세를 갖추는 일에 회의를 느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독일 民主主義共和國에서의 社會主義의 전설을 위한 투쟁은 그러므로 平和의이고 民主的인 기반위에 독일의 再統一을 위한 투쟁의 기초가 되고 중요 전제가 된다.」⁽¹²⁾

여기에는 전쟁 직후의 「임시적」 단계에서 벗어나 主權國家를 공고화하려는 共產東獨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社會主義國家建設이라는 公式的인 表明에도 불구하고 東獨이 당면한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1950년대에 걸쳐 실시된 產業改革과 農地改革으로 인한 社會的, 經濟的 關係의 变動, ⁽¹³⁾ 社會化와 集團化, 旅行의 制限, 生活의 困窮化, 덕분에 西獨經濟의 誘引力 등으로 西獨으로 빠져 나가려는 避難民이 洪水事態를 이루게 되었다. ⁽¹⁴⁾ 그 결과, 1961년 8월 31일에는 베를린의 장벽이 철저하

(11) Programmatische Erklärung der Nationalen Front, 13, November 1955, Programmatische Dokumente, S. 160/167에서 인용.

(12) Ulbricht,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Bd. VI, 1962, S. 276.

(13) Renata Frisch Bournazel, Die Sowjetunion und die deutsche Teilung (Westdeutscher Verlag, 1979), SS. 77 이하.

(14) 이로 말미암아 國際輿論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東獨자체도 큰 곤경에 부딪쳐 노동력의 급속한 減少, 특히 專門家와 大學出身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 만이 아니라 政權의 批判勢力 내지는 抵抗勢力を 없애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政治의 彈力性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게 구축되어 유일하게 개방되었던 東西獨의 關門마저 봉쇄되기에 이르렀다.

東西獨 國境 폐쇄는 東獨에서의 독일문제에 대한 해석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두개의 독일國家의 並存(Nebeneinander)의 오랜 時日」을 전제한다고 밝히면서 東西獨의 영속적인 共存體制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수 개월 후에 「민족적 再統一의 平和에 이바지하는 반면, 독일의 분단은 戰爭의 危險을 증가시킨다」고 한데 이어 그후 다시 1년 뒤에는 東獨共產黨의 공식 기관지에서는 「이러한 民族的 투쟁에서는 우리들에게 변증법적 原理가 적용된다. 즉 우리들이 統一을 이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철저히 個別化되어야 한다」⁽¹⁵⁾고 밝히면서 東獨政權의 獨자적 發展을 강력하게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두 國家體制의 共存을 강조하는 동시에 東獨은 다른 한편, 꾸준히 東西獨의 聯邦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⁶⁾ 그들은 聯邦論의 구상을 한편에서는 독일내에 현실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두 國家간의 經濟的 競爭을 전개하면서⁽¹⁷⁾ 다른 한편에서는 그 協力者를 西獨의 社會民主黨에서 구하게 되었다. 東獨의 울브리히트는 독일 共產黨創設 4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平和, 軍備撤廢, 理解增進, 聯邦의 길은 西獨에 있어서 社民黨이 그들의 지금까지의 路線을 변경시켜 보다 나은 社民黨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¹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66년 基民黨과 基社黨과의 大聯立에 社民黨도 참여하였을 때, 東獨共產黨(SED)은 西獨의 社民黨이 「階級鬭爭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하여, 東獨은 西獨에서의 聯邦構想의 協力者를 못찾았다는 口實로 民族의 分斷을 공식화하였다.⁽¹⁹⁾

이로써 1967년초에 발표된 國家公民法이나 1968년의 新憲法을 포함하는 많은 法的措置에서 東獨은 그들의 政權을 「독일 民族의 社會主義 國家」로 표시하여 民族分斷을 法的基礎에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 4월 18일에 効力を 갖게 된 東獨의 新憲法은 「전체 독일 民族에게 平和와 社會主義의 장래로의 길을 제시하는 責任」을 강조하였다. 그 8條는 이러한 입장을 다시 부연하여 「독일 帝國主義에 의해 강요된 독일分斷의 克服」과 民主主義

(15) Schweigler, ebenda, S. 74.

(16) Schweigler, ebenda, SS. 75-76.

(17) 그들은 Lenin의 資本主義世界를 「극복하고 앞서야 한다」(dognet i peregnat)라는 口號를 다시 채용하고 있다.

(18) Neues Deutschland, 4, Januar 1964, S. 5.

(19) Norden, Albert u.a., Zwei deutsche Staaten. Die Nationale Politik der DDR, (Wien: Europa Verlag, 1967), S. 99.

와 社會主義의 기초 위에서 통일(재통일이 아니라)까지 이르는 두개의 독일國家의 점진적인 接近을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동시에 「社會主義 祖國에 대한 市民의 사랑」을 강조하고 「社會主義的 國家意識」을 강요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接近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는 西獨을 否定的 實體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여러 力量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의 故鄉, 우리의 祖國, 즉 독일 民主共和國이 독일의 다른 한 부분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反動의 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²¹⁾ 이로써 「상이한 社會秩序, 독자적인 境界, 독자적인 經濟秩序, 고유한 教育과 文化를 가진 두개의 독일 國家」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路線에 입각하여 東獨은 1970년 1월 새로운 內獨關係를 수립하려는 西獨의 브란트首相의 提議에 대응하여 「社會主義的 독일 國民國家가 獨占資本主義와 나토에 소속된 西獨聯邦共和國과는 아무런 民族的 共通性도 갖지 않는다」고 밝히게 되었다. 따라서 東獨과 西獨의 두 國家사이에는 아무런 內獨關係(Innerdeutsche Beziehungen)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다시 1974년에는 독일의 再統一에 관련된 憲法 8條 2項을 삭제하고 東獨의 새로운 代表 호네커는 西獨이 外國, 다시 말하면 帝國主義의 外國이라고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東獨이 추구하는 東·西獨 分斷의 固定化는 전후 유럽의 國際狀況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련의 유rep政策과도 일치되는 것이었고⁽²²⁾ 독일의 二重的 將來(分斷과 統一)는 西方世界에 대해 전통적으로 소련이 추구하는 政策과 일치되는 것이다.

東獨이 걸어온 政治史的 過程은 그들의 國民意識形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國民教育에는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東獨은 1945년 독일이 분단된 직후부터 교조적인 共產主義理念에 입각하여 ① 平和的, 民主主義的 國家の 창설, ② 民族의 再生과 國民의 統一이라는 두개의 政治的 目標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政治的 目標가 가장 잘 반영되고 그 課業을 수행하는 道具의

(20) Schweigler, ebenda, S. 77.

(21) Hühns, Erik, Heimat, Vaterland, Nation (Berlin: Verlag Tribüne, 1969), S. 6.

(22) 西方에 대한 소련의 이해관계는 經濟的, 政治的 근거에서 緊張緩和政策에 크게 의존하였다. 中共이 國際舞臺에 등장하여 이니시아티브를 적극화함으로써 아기된 國際的 協力의 不安으로 소련은 西方, 특히 西獨을 그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동시에 戰略的 協力體系에 있어서는 西獨과 대치한 東獨의 군사적 지위를 중요시한다.

役割을 다하는 것이 곧 歷史教育이었다. 東獨의 歷史教育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社會主義的 歷史意識의 「科學的 基礎」로서 東獨의 지배적인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手段으로 작용하였다.

東獨의 「國民戰線」의 宣傳政策은 歷史教育의 目標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과거를 통해서 現在를 해명하려는 노력은 歷史的 生活의 內的 關聯의 理解와 歷史的 判斷을 요구하고 안으로는 독일이 겪은 破局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밖으로는 「西獨의 帝國主義」와 대결하는 武器로 작용시키는 데 있다.⁽²³⁾ 東獨 歷史敎科書는 社會主義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法則의 必然性을 인식시키고 노동자계급이 이룩하여야 할 歷史的 使命을 강요하는 일과 동시에, 現在와 將來에 있어서의 「소련의 指導的 役割」의 필요성과 「社會主義的 國家共同體」의 歷史的 意味를 강조해 마지 않는다.⁽²⁴⁾ 歷史敎育은 東獨政府를 主權國家로 주장하는 반면, 전체 독일 民族의 孽속과 장래에 있어서의 再統一을 형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에 이르러 歷史敎育의 敎科內容이 부분적으로 修正되었다. 1946—47년의 歷史敎育의 주된 내용이었던 「과거의 理解를 통한 現在狀況의 解明」이라는 데서 후퇴하여 現在를 인식시키기 위해 보다 더 客觀的인 法則性을 근거로 한 發展過程을 이해시킨다는 데 집중되었다. 이것은 곧 東獨政權의 수립이 독일 歷史의 必然的인 結果라는 점을 강조하고 住民에 대한 心理的, 政治的 統合과 結束을 강화하고자 한 政治的 目標와 일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다른 敎科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52년과 1954년의 東獨共產黨(SED)이 주도한 敎育改善의 決定에 따르면 「歷史敎育의 目標는 독일 人民의 人文主義的, 民主主義的 전통, 특히 노동계급의 革命的 關爭의 전통을 밝히고 서술하는 과업과 결부됨」을 강조하고 「독일史가 결코 지배적인 좌취계급의 굴욕적인 행위, 부르조아의 背信, 帝國主義者들의 犯罪를 밝힐 뿐만이 아니라 自由롭고 革命的인 傳統을 확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여 社會主義의 完成을 위한 道具로서 歷史敎育을 이용하게 되었다.

歷史像을 형성하고 이를 宣傳하는데 있어서 東獨은 특히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① 東獨의 進步主義的 傳統의 유일한, 歷史的으로 合法的인 繼承國家

(23) Die Lag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n H.G. Wolf), die Deutsche Frage in der Politischen Bildung, Zur Sache 2/78, S. 147.

(24) 1946/47년의 〈투쟁하는 人文主義〉의 교육에 대신해서 民主主義의 愛國主義가 주입, 교육되었다. Schweiger, ebenda, S. 79.

라는 점과 ② 東獨의 國家的 支配要求가 西獨政府의 單獨代表 要求에 대항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目標를 위해 歷史科와 同시에 現代科(Gegenwartskund), 鄉土科(Heimatkund—社會科에 해당함)에서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가 강하게 注入되었다.

愛國主義가 강조되는 民族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鄉土(Heimat)라는 개념에 깊이 접착하여 「鄉土란 사람이 모든 摘取에서 해방되어 의식적 行動의 同權者로서 평화롭게 社會의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향유될 수 있다」⁽²⁵⁾고 보고 있다. 이것은 社會主義 國家體制를 강요하고 一體感을 주입하기 위한 政治教育의 性格을 지닌 것이다. 그들은 鄉土라는 개념이 확대되어 祖國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강요와 주입은 農村과 工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勞動力を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려는 意圖가 포함되어 있다.⁽²⁶⁾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西獨의 社民黨과 自由黨의 聯立內閣이 새로운 東方政策을 천명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항하여 그들의 國家意識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더욱 철저하게 추구되었다.

東獨은 이미 스탈린의 民族主義理論을 수정하여 獨자적 民族理論을 내세우고 西獨과는 완전히 분리된 國民意識과 一體感을 그 住民에게 요구하기 위해 소련에서 차용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祖國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社會의 現實로 규정하고……社會・經濟的 變化와 要求의 產物로서 파악하고 普遍의이고 階級中立의인 祖國이란 있을 수 없다」⁽²⁷⁾고 단정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을 내세워 社會主義革命을 통해 社會主義國家를 형성하려는 共產主義의 路線을 대변하는 것이고 社會主義의 愛國主義란 곧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의 同意語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東獨 歷史教育은, 따라서 獨일史의 내용중 그들의 立場에 맞는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각 學年에 교육하였다. 즉 후쓰의 農民戰爭, 프랑스 革命과 獨일의 民主的 發展, 「위대한」社會主義 10월革命과 獨일 民族, 1945년 이후의

(25) Die Lage, ebenda, S. 147.

(26) 「社會主義의 愛國主義에 충만되어 우리들의 生產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큰 生產成果를 얻을 수 있을 때 넘은 의미의 鄉土인 祖國을 모든 侵略에서 방어할 수 있다」 Dieter Riesenberger, Die Nationale Frage im Geschichtsunterricht der DDR, in: C.Lessing u. G. Fischer (Hrsg), Überlegungen zu Stellenwert und Darstellung der deutsche Frage im politischen Unterricht (Stuttgart, 1977), S. 63.

(27) Ebenda, S. 23.

社會主義的 世界體系와 世界革命의 加速化등이 곧 그 내용이다.⁽²⁸⁾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란 스탈린의 民族論에 대신하여 소련에서 받아 들인 개념으로서 이는 西獨의 적극적인 對外政策, 즉 東方政策에 대응하여 그 住民의 結束을 강요하기 위한 東獨政權의支配이 韻土로 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3

1945년 전쟁의 종결과 四大強國에 의한 獨逸의 占領이라는 狀況으로 독일人们에게는 그들의 歷史的 過去와 그것이 초래한 現實的 分斷에 직면하여 독일문제 내지는 민족 문제가 가장 곤욕스러운 것으로 제시되었다. 1949년 東·西獨에 각각 다른 政治體制가 확립된 이후의 독일 문제는 대체로 ① 독일의 統一, ② 東西獨의 각 國家의 발전과 강화, ③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統一을 위한 政治的 統合이라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아직 전체 독일 民族 내지는 國民意識이 유지될 수 있고 독일의 領土의 統一性이 보장되어 「분단될 수 없는 독일(Unteilbares Deutschland)」을 믿고 現實이 허용되는 대로民主的이고 合法的인 統一政府에 의해 分斷은 극복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²⁹⁾

독일 聯邦共和國(西獨)의 창설은 이러한 意見의 風土를 반영하여 그 基本法의 制定에서 이미, 독일 國民國家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독일 國民의 部分國家에서 출발하였음을 명백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部分國家는 전체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決定에 의한 전체 독일의 再統一까지의 過渡期에만 存續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올 독일 國家의 잠정적 代理役割을 담당할 것으로 다짐하였다.⁽³⁰⁾

西獨政府는 창립초기부터 일찌기 독일(제 3帝國)의 敵이었던 西方國家들과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紐帶를 강화하려는 입장은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50년대에 걸쳐서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對立이 격화되어 冷戰體制의 緊張關係가 짙어지면서 더욱 적극화하였다. 西獨이 國際關係에서 차지하는 地位는 共產主義에 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쳐지여서 西獨의

(28) Ebenda, S. 65.

(29) Schweigler, ebenda, S. 106.

(30) 전후 독일의 分斷을 잠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비단 독일인들만이 아니라 독일 問題에 참여한 聯合國當事者들의 견해이기도 하였다. 1945년 초 전쟁이 종결되기 전 포츠담會談의 美國측 覺書속에는 이미 「독일 人民은 항구적인 運命으로 그 해체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독일의 國民的 統一感情의 성장은 어떤 특정한 集團도 1871년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분단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Thilo Vogelsang, Das geteilte Deutschland, dtv Welt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1966, S. 17ff.

弱化가 곧 유럽의 自由陣營의 弱化를 뜻한다는 論理的 歸結이 아데나우어 執權 초기부터 명백하게 인식되었다.⁽³¹⁾

특히 韓國戰亂을 계기로 西獨은 적극적으로 유럽 防衛共同體인 나토에 加盟하였고,⁽³²⁾ 유럽共同市場에 참여하는 등 유럽 統合過程에 가담하게 되었다.

執權초기부터 아데나우어 政府는 이러한 분단상황에서 「強者の政策(Politik der Stärke)」을 추구하여 政治的으로 안정되고 經濟的으로 부흥하는 길만이 독일 통일의 機先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西獨이 西方依存政策에 의해 經濟的으로 크게 부흥하는 반면, 東獨이 소련과 東歐圈에 깊이 유착하는 국면은 再統一의 전망을 크게 후퇴시키고 西獨國家體制 자체를 결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西獨에 있어서의 國民意識이 어떤 것인가를 밝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東獨에서처럼 國家에 의해서 강압된 統合意識이 西獨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西獨에 있어서의 國民들의 意思는 西獨政府의 政治, 經濟, 文化등의 機構的 過程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文化的 價值, 國家的 象徵에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西獨의 國家意識은 수많은 輿論과 意見調查를 통해서 비로소 반영된다.

먼저 統一문제에 대한 西獨 住民의 意思는 어떠한가?

이것은 二次大戰전까지 독일國境이었던 오데르—나이세(Oder—Neisse)問題와 결부된다. 이 문제는 통일에 대한 西獨住民의 의견만이 아니라 東獨에 대한 承認問題와도 직결된다. 오데르—나이세線을 독일國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分斷된 國家의 하나인 西獨의 國民이 아니라 獨逸(전체)의 國民임을 주장하는 의견과도 결부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욱 오데르—나이세 兩江 저편에 많은 독일인이 거주하였기에 더욱 복잡하다.

1) 먼저 독일이 一次大戰 때까지 독일 영토였던 강너머 폼메른(Pommern), 술레지엔(Schlesien), 東프로이센(Ostpreussen)을 아직도 독일領土로 생각하는가 하는 여론조사에는, 1953년에 완전히 잊어 버린 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者が 불과 11%였던 것이 1969년에는 68%를 차지하게 되었다.⁽³³⁾

(31) P. Weymar, Konrad Adenauer. Die autorisierte Biographie (München, 1955), S. 660.

(32) A. Baring, Aussenpolitik in Adenauers Kanzlerdemokratie. Bonns Beitrag zur Europäischen Verteidigungsgemeinschaft (München, 1969), S. 62ff.

(33) IFD Archiv Bericht Nr. 1661, April, 1970. Schweigler, ebenda, S. 116에서.

2) 독일과 폴란드와의 國境인 오데르—나이세線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여론조사에는 1951년에 긍정한 수가 8%이고 부정한 수가 77%인데 비해서 1969년에는 전자가 58%, 후자가 23%를 차지하게 되었다.⁽³⁴⁾ 東獨을 國家로 승인하는 입장도 초기에는 西獨政府의 할슈타인原則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立場도 점차로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國民輿論의 추이는 西獨政府의 對外政策과 內獨問題에 대한 탄력성 있는 對應策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정되었던 것이다.⁽³⁵⁾

東西兩陣營간의 緊張緩和를 위해 1962년 아데나우어의 東獨에 대한 平和提議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이어 1963년 社會民主黨 출신으로 브란트가 西베를린市長으로서 東獨이 제기한 共存口號에 대응하여 「작은 발걸음의 政策」이라고 내세우면서 조심스러운 接近을 시도하였다.⁽³⁶⁾ 브란트의 점진적인 改善과 때를 같이 하여 西獨政府도 東歐圈과의 外交的 正常화와 通商의 努力を 전개함으로써 할슈타인 原則도 점차로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1966년 3월에 발표된 에르하르트와 슈뢰더(Erhard—Schröder)의 「平和覺書(Friedensnote)」로서 東西獨간의 緊張緩和政策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과 그 위성국의 반대로 좌절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東西緊張緩和에 대한 西獨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은 곧 「東方政策」과 「독일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國民輿論을 환기시키게 되었다.⁽³⁷⁾ 國民輿論의 추세에 입각하여 1966년 6월초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社會民主黨大會에서는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를 개선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東方政策」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³⁸⁾ 따라서 이전의 兩極化政策에서 후퇴하여 西獨政府가 緊張緩和過程에 참여하여 東西關係의 포괄적인 改善 속에서 독일의 再統一을 장기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社民黨大會에서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社民黨의 政策을 自由黨이 지지하여 1969년의 선거는 「독일문제」와 「東方政策」등의 중요잇슈를 國民에게 묻는 선거가 되어 首相候補 브란트는 「독일

(34) IFD Stimmung 7, Juni 1970, Schweigler S. 117에서.

(35) Meissner, B. (Hrsg.), Die deutsche Ostpolitik 1961~1970. Kontinuität und Wandel (Köln, 1970), S. 45ff.

(36) Renata Fritsch-Bournazel, ebenda, S. 88.

(37) Meissner, B. (Hrsg.), ebenda, S. 101ff.

(38) Siegler, H. (Hrsg.),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Bonn, 1970), Bd. 4, S. 24ff.

내에 두개의 國家의 存續」과 「유럽에 있어서의 領土的 現狀의 承認」을 묻는 결과가 되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브라트는 그의 就任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의 國民的 利益은 西方과 東方사이에 西獨이 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독일인민은 소련과 그 뒤의 東유럽 인민들과의 平和를 필요로 한다.」

그 해 10월 30일에 外相이었던 셀(Scheel)은 본 駐在 소련大使와 이와 관련된 協議를 나누었고 다시 4週후에 브란트—셀의 政府는 광범한 東方政策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東유럽과의 關係改善은 곧 東·西獨간의 關係改善 없이는 실현될 수 없고 독일문제의 발전은 곧 모스크바의 반응 없이는 이룩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브란트는 이미 「對立에서 共存」을 제의함으로써 東西間의 緊張緩和를 추구하였다.⁽³⁹⁾ 다시 독일문제에 있어서는 「접근을 통한 變化(Wandel durch Annäherung)」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브란트는 1970년 1월 14일 「분할된 독일에 있어서의 민족의 現況」이라는 年頭敘書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社民黨—自由黨 聯立政府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는 「독일민족은 하나이다. 그러나 독일 땅에는 두개의 國家가 존재한다」는 이른바 「1민족 2국가론(Zwei Staaten in einer Nation)」을 제기하였다.⁽⁴⁰⁾ 그 前提로서 브란트는 東獨에 대해 武力拋棄宣言을 위한 交涉을 위해 「자유롭게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게 되었다. 이로서 이 때까지 극복되어야 할 否定의 對象으로서의 東獨에 대해 새로운 國際法의 考慮를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⁴¹⁾

1971년 東獨의 울브리히트에 대신하여 호네커(Honecker)가 共產黨(SED)의 代表職을 계승함과 동시에 東獨에 대한 소련의 태도완화를 계기로 東·西獨간의 關係는 급진전하였다. 外相級의 事前協議끝에 1972년 11월 9일 「(西獨)聯邦共和國과 (東獨)民主共和國간의 관계기본을 위한 條約(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略하여 Grundlagen-vertrag, 基本條約)」이 본에서 文案作成되고 한달 뒤인 12월 21일 베를린에서 署名되었다.

(39) Renata Fritsch-Bournazel, ebenda, S. 8.

(40) Ebenda

(41) Ebenda, S. 89.

이 條約으로 東·西獨關係는 두 國家의 어느 하나도 그 主權을 그들의 國家領域내에만 한정시켜야 한다는 共存體制를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973년에 西獨과 東獨이 각각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前提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條約은 그 承認過程에서 西獨聯邦議會에서 基民黨과 基社黨의 反對에 부딪쳐 1972년 9월 議會解散과 再信任을 묻는 選舉와 바이에른州政府에 의한 聯邦憲法裁判所에의 提訴라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어떻든 基本條約의 비준은 東西兩獨逸관계를 國際法의in 의미에서 새로운 基礎위에 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되었다. 이로써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주장된 「민족에 대한 獨占的 代表要求(Alleinvertretungsanspruch)」는 후퇴되고 새로운 독일像 내지는 國民意識의 문제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基本條約에 의해서 東西獨의 關係가 새로운 局面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西獨에 있어서의 國民意識 내지 一體意識은 東獨에서와 같이 政治的 統制와 強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青少年의 教育問題와 직결되어 가장 전망하기가 어렵고 쉽게 解決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이유는 西獨의 青少年은 이미 그들의 歷史的過去에 대한 강한回想이나 그것을 토대로한 國民意識 내지는 國民的自己決定의 合法的 힘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西獨社會에서는 社會心理學者들이 말하는 過去와 未來를 잇는 構造的 時間—즉 「時間의 展望(Zeitperspektive)」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²⁾

國民意識의 浸蝕過程은 독일과 유럽의 破局을 초래한 國家社會主義에 의한 과도한 民族意識의 강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歷史的 決定으로 천후 歷史學의 뜨거운 爭點은 國家社會主義를 독일史의 계속성 속에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⁴³⁾

1955년 데히오(Ludwig Dehio)는 그의 著書「독일과 世界政策」에서 제3帝國을 「독일史와는」 관련없는 特수현상으로 독일歷史研究에서 다루려는 辯明的 努力에 대해 처음으로 批判을 가하게 되었다.⁽⁴⁴⁾ 이 때까지 독일 歷史

(42) Kosthorst, E., Die Lage in der Bundesrepublik, in: Deutsche Frage in der Politischen Bildung, Offentliche Anhörung des Ausschusses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78, Zur Sache 2/78, S. 29f.

(43) 예컨대 나찌즘의 起源을 독일의 傳統에서 찾기 보다는 프랑스革命에서 비롯되는 大衆民主主義에서 찾아야 한다는 G. Ritter를 중심으로 한 論議를 참조할 수 있다. 계속성의 문제를 포함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Andreas Hilgruber, Grossmacht und Militarismus im 20. Jahrhundert. 3 Beiträge zum Kontinuitätsproblem (Düsseldorf, 1974)을 들 수 있다.

(44) Deutschland und die Weltpolitik im 20. Jahrhundert, (1975) S. 155.

學에는 國家社會主義가 독일에서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歷史의 계속성을 惡用한 介入으로 評단하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⁴⁵⁾ 히틀러 個人에게 모든 破局의 責任을 돌리든가 그를 둘러싼 權力엘리트에 돌리든가를 막론하고 이를 見解들은 바이마르時代에서 계승된 保守的 自由主義를 대변하는 政治理念과 결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에 이르러 비장되었던 公文書가 公開됨으로써 나찌즘 研究에 새로운 脚光이 던져져 이때까지 單一因果的 處理에서 벗어나서 히틀러體制의 등장을 가능케 한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原因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증대되기에 이르렀다.⁽⁴⁶⁾ 이로써 1913년부터 1933년까지는 독일 최초의 民主主義가 실현되는 시기로 보기 보다는 제국이 붕괴되고 바이마르共和國이 성립되는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背景과 構造의 矛盾을 집중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때까지 독일이 걸어온 「독자적인 길 (deutscher Sonderweg)」을 강조하였던 歷史學은 그 方向을 수정하여 보다 폭넓은 比較史的研究 내지는 社會史的研究에 집중하게 되었다.⁽⁴⁷⁾

따라서 이 때까지 기피하였던 나찌스時代에 대한 批判的 研究와 동시에 독일의 國民主義의 발전에 대한 社會構造的研究가 활발해지고 이것을 거리낌 없이 二世教育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西獨 歷史敎育의 現況은 歷史學의 활발한 研究를 뒤따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歷史敎育의 先決問題는 1972년의 基本條約에 대응하여⁽⁴⁸⁾ ① 아직도 독일이 하나의 民族이고 하나의 民族이어야 하며 하나의 民族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② 분단된 독일내의 두 國家에서 서로 다른 一體感(國民意識)이 형성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東獨이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강조하고 독일史의 「우수한 要素(Beste Elemente)」만을 取捨選擇하여 독일史를 교육하는 것과는 달리 西獨에 있어

(45) G. Iggers, Deutsche Geschichtswissenschaft. Eine Kritik von Herder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71), S. 338ff.

(46) 大戰의 責任을 독일측에 둘린 研究, F. Fischer의 Griff nach Weltmacht는 유명한 Fischer論爭의 導火線이 되었다.

(47) Rudolf Vierhans, Probleme vergleichender Institutions und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Zeit, in: Mitteilungen aus der Max-Planck-Gesellschaft, 1972, S. 17 1-186, 특히 S. 176ff 참조.

(48)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4년 東獨憲法에서는 統一條項(8條 2項)을 삭제하는 대신, 西獨의 基本法의 統一內容은 전부한 文句가 되었다고 본다. Erich Kosthorst, Die Teilung Deutschlands und die Entstehung zweier deutscher Staaten, Eine didaktische Analyse, in: Politik und Kultur, 1 Jg., 3(1974), S. 16.

는 독일史에 있어서의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國民意識의 이데올로기化를 경계하게 되었다. 독일史의 否定的인 面을 확인하는 일은 독일의 過去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未來에 대한開放的 眺望을 할 수 있는 걸과 통한다고 강조한다.⁽⁴⁹⁾ 물론 이로써 독일의 一體意識의 危機가 除去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후에 겪은 精神的 打擊과 경련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을 재해석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요한 政治的 展望을 새로이 定立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이라 西獨聯邦國이 이미 하나의 歷史的 現實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國民意識이 統合이데올로기의 代替物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歷史가 던지는 물음에 답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독일史에 대한 批判的 對決만이 새로운 독일의 一體意識(우리는 누구이고, 누구일 수 있으며, 누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政治的으로 표현될 때 西獨 聯邦共和國이라는 現實的 體制를 중심으로 새로운 國民意識(聯邦共和國國民, Bundesrepublikanische Nation)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⁵⁰⁾ 여기에는 르낭(Ernst Renan)이 「民族이란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犠牲의 意識위에 세워질, 또한 공동의 生活을 계속해서 영위할 명백한 所望과 同意위에 세워질 共同體이다……民族이란 民族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한 民族의 實存이란 매일 매일 계속된 國民投票이다」라고 확인한 民族論이 적용된다. 르낭이 확인한 民族이란 새로운 政治的 決定에 의해서 忠誠과 象徵과 政治的 統合을 요구하는 새로운 國民意識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에서는 지난날 民族을 決定하였던 客觀的인 諸條件——血統, 言語, 傳統——은 큰 意味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⁵¹⁾

더우기 超民族的 經濟秩序의 時代, 그리고 民族主義의 危機가 명백해진 現代에 이르러 독일 問題는 超民族的 問題와 결합되어 全體 독일民族의 再統一이라는 理念을 후퇴시키고 西獨聯邦共和國을 現實로 하는 西獨 國民意識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49) Peter Christian Ludz, Deutschlands doppelte Zukunft. Bundesrepublik und DR in der Welt von morgen (München, 1974), S. 100.

(50) E. Kosthorst, ebenda, S. 39.

(51) E. Kosthorst, ebenda, S. 40.

1959년 카알 야스퍼스(Karl Jaspers)는 라디오 회견에서 「民族的 理念에 대신해서 유럽理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독일 再統一의 要求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음을 비로소 公開的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1960년 그의 著書 「自由와 再統一」⁽⁵²⁾에서 「독일의 歷史가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民族國家의 歷史가 종결되었다」고 단정하였다. 1945년은 독일의 國家社會主義를 봉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일政治意識의 근본적인 修正을 요구하는 전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西獨에 있어서 이미 部分國家로서의 一體意識내지는 國民意識이 형성되고 독일民族 再統一의 요구가 크게 후퇴되었음을 우리는 위에서 살폈다.

1970년 8월에 소련과 條約을締結할 때 西獨政府는 이른바 「독일 統一의 覺書」를 제시하고 독일 民族이 자유로운 決定에 의해 그 統一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유럽의 平和로운 상태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일 民族에 대한 아무런 規定도 밝혀지지 않았다. 독일史의 다양한 過程속에서 무엇을 참다운 독일로 규정하고 그 民族의 方向을 어떻게 결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歷史의 再解釋과 결부되었다.

오늘의 西獨歷史家들은 한결같이 비스마르크의 독일 統一을 독일의 발전 과정에서 잘못된 決定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小독일主義의 解決方法으로 이룩된 비스마르크 帝國은 모든 憲政的 運動을 차단하고 非民主的이고 保守的인 政治的, 社會的 構造위에서 강압적인 官憲國家로 발전되어 獨逸民族의 意思와는 일치되지 않는 政治秩序로 化石化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스마르크의 독일民族理念은 모든 內政的 要求를 무시하고 社會的 葛藤을 外面하는 支配階層의 現狀이데올로기로 작용되었기에 오늘에 와서 이것은 독일史의 繼續性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⁵³⁾

독일 民族意識은 19세기초 프랑스와 적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나폴레옹에 대한 이른바 「解放戰爭」을 계기로 하여 아른트(E.M. Arndt)나 피히테(J.G. Fichte)와 같은 대표적인 民族主義者들에 의해 구체화됨으로써 유럽의 民族思想과는 달리 그 초기부터 侵略的인 내용과 特徵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의 民族思想, 특히 헤르더(J.G. Herder)의 文化的, 人文的 民族思想은 크게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52) K.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S. 3.

(53) Wolfgang Mommsen, *Die Deutsche Frage als Nationales und als Europäisches Problem, Politik und Kultur*, Heft 2, 1977, S. 6.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실현된 독일 帝國은 유럽적 秩序에 대해서 바람직한 聯邦體制(1815년 비엔나條約의 決定에 의해서 이루어진)를 포기하고 強壓的 官憲國家를 만들어 냄으로써 對外政策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의 秩序를 파괴한 것은 아니더라도 바이마르時代에는 敗戰에 대해 독일이 아무런 責任도 없다는 反유럽적, 反民主的 基本態度가 우세하였다. 다시 國家社會主義의 權力掌握으로 人種的, 侵略的 民族主義가 유럽의 秩序를 무시하고 유럽의 領權을 主張하는 侵略戰爭이 감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史의 발전과정속에 비스마르크帝國에 의해서 이룩된 民族解決만이 歷史的 正統性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18세기까지 독일은 多元國家體制로 유지되었고 1815년 이후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聯邦體制로 발전되었던 歷史를 회상할 수 있다. 특히 3월革命 이전의 독일 社會의 政治的, 社會的, 知性的 要求는 自由와 統一이었다. 비록 全體독일의 통일에 대한 念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느슨한 凝集力을 가졌을 뿐 오히려 自己決定의 民主的 原理에 의해 媒介될 수 있는 自由의 要求가 革命전 독일 社會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統一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權力集中的인 民族國家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革命前의 독일의 民族意識은 강한 地方的 要因의 共存을 토대로 聯邦主義와 결부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독일에 있어서의 文化的 多元主義가 政治的 多元主義와 결부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독일은, 人爲的으로 만들어 놓고 分割된 배를린을 제외한다면 프랑스와 같은 文化的 中心地란 없다.

中유럽에 있어서의 독일의 聯邦體制는 유럽의 秩序와 平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볼프강 몸센(Wolfgang Mommsen)은 통일을 전망하는 狀況에서 民主的인 原理와 결부되었던 三月革命 이전의 민족운동이 오늘의 독일의 政治的 指導理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⁵⁴⁾

독일의 民族統一이란 결코 1871년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解決을 다시 뒤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帝國에서 바이마르 共和國을 거쳐 國家社會主義에 이르는 잘못된 歷史的 決定이 독일史의 繼承性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독일에 있어서 民族의 傳統을 재해석하고 統一에 대한 새로운 展望을 추구하며 政治的 統合過程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國民意識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한결같이 批判的 歷史學의 研究成果와 결부되었음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54) Ebenda, S. 11.